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s Related to Korea in the Major Asia-Pacific University Libraries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I. 서론	2.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목록 특성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III.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 레코드 특성 분석
2. 연구대상 및 방법	1. 한국관련 목록 레코드의 현황
3. 선행연구	2. 한국관련 목록 레코드의 특성
II.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자료 및 목록 특성	IV. 결론
1.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자료 현황	

초 록

이 연구는 아태지역 주요 10개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관이 5,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국립 칠레대학도서관은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파울루와 베이징대학도서관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개 UNIMARC 보다는 MARC 21 형식으로 레코드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을 적용하거나 LCSH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자료는 대체로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한글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5개관이었다. 넷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가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황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인 베이징과 도쿄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면 상파울루, 칠레, 멕시코, 델리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레코드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키워드: 아태지역도서관, 대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국주제명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related to Korea shown in the cataloging records of major 10 Asia-Pacific university libra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Korea-related records in most university libraries are very poor except for some libraries and are generally 2 times less than Japan related records. There are even 6 times less in 2 libraries. Second, most libraries organize records in MARC 21 format rather than UNIMARC, and apply subject headings of the national library, or go together with LCSH. Third, Korean materials usually write Korean in Roman characters, but 5 libraries are marked with the original Korean language and available Hangeul search. Forth, on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distribution in sub criteria of Korea-related records, subject related to 'history', 'economy', and 'politics' is largely shown in the highest rate. Fifth, Among the Korea-related subject heading, the terms such as 'Taekwondo', 'Kimchi', 'Dokdo', 'Donghae', 'Duman-gang', 'Baekdu-san' have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libraries. However, these terms agree to LCSH in most libraries except for neighboring countries's libraries.

Keywords: Asia-Pacific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Subject headings, Korean subject heading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233)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hgim@jnu.ac.kr)

•논문접수: 2015년 8월 29일 •최초심사: 2015년 9월 1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301-323,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301]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OECD에서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강조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OECD 2011). 이러한 권고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넷은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임으로써 지구 반대편에 앉아서도 상대방의 정보마당을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지만 무질서하고 범람하는 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학술적인 정보는 자기나라의 대표적인 연구 집단인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대학도서관 목록에서 한국관련 자료가 많이 검색될수록, 도서관 서가에 한국관련 자료가 많이 비치되어 있을수록,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기회가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도서관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정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지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있다면, 인터넷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아태지역 일부 국가의 대표적인 대학도서관 목록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관련 자료가 매우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김치’나 ‘태권도’와 같은 한국의 문화와 직결되는 자료들이 이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소장되어 있으면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레코드에서 용어들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분석할 필요도 있다.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에 이들 주제명이 어떻게 표기되는냐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러한 용어에 익숙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 학생들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대해 기본적인 실태조차 분석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들 대학도서관의 목록에 한국관련 레코드가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주제별 분포는 어떠한지, 또한 한국과 관련된 주제명이 이들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실태, 주제영역별 특성과 레코드의 기술, 그리고 한국입장에서 표기에 관심이 높은 일부 레코드의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OPAC)을 통해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은 편의상 OECD나 G20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교적 OPAC 접속이 용이한 아태지역 10개국의 대표적인 대학도서관을 하나씩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선정된 10개 대학도서관은 미국의 하버드대학도서관, 캐나다의 토론토대학도서관, 멕시코의 국립자치대학도서관, 브라질의 상파울루대학도서관, 칠레의 국립칠레대학도서관, 호주의 국립호주대학도서관, 뉴질랜드의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 중국의 베이징대학도서관, 일본의 도쿄대학도서관, 인도의 델리대학도서관이다.

한편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이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아태지역의 주요 대학도서관 10개관에 대한 자료현황과 목록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각 대학도서관의 OPAC을 직접 조사하여 도서관별로 한국관련 레코드를 추출한 다음, 대략적인 레코드 현황 및 구조, 주제별 분포, 그리고 도서관간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김치’나 ‘태권도’, ‘독도’, ‘동해’, ‘두만강’, ‘백두산’ 등의 용어와 같이 각 대학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또한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주제명의 표기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란 ‘김치’나 ‘태권도’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일부 주제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에 상응하는 각국의 언어)이라는 주제명이 포함된 레코드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관련 목록레코드가 대부분 포함되므로 주제명의 특성이나 대략적인 레코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선행연구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나 주제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김영귀(1997)는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인 LCSH 제18판의 한국관련 주제명, 윤정옥(2001)은 LCSH 제20판의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표목, Kim(1989)은 LCSH 제12판의 한국 및 동아시아관련 주제명을 분석하였다. 김정현과 문지현(2009)은 LCSH 초판부터 제30판까지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 김정현(2010)은 LCSH의 초판부터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 김정현(2013)은 주요 국가 주제명표목표의 한국 국경관련 주제명, 문지현과 김정현(2011a; 2011b) 및 문지현(2012)은 중국과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있

어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에서는 주요 국가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남태우 등(2008)은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 정연경(2010)은 정보 접근점으로 LC 주제명 표목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의 연구는 주로 LCSH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 들어 문지현과 김정현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WorldCat에 수록된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한 윤정옥(2012; 2013),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김정현(2011), 주요 유럽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태지역 대학도서관의 OPAC을 조사하여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II.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자료 및 목록 특성

1.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자료 현황

대학도서관의 현황은 목록레코드의 규모 즉, 자료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한국관련 자료수와 일본관련 자료 수는 해당 대학도서관의 OPAC을 통해 조사하였다. OPAC에서 주제명(주제명이 없는 경우 키워드) 가운데 'Korea'와 'Korean', 'Japan'과 'Japanese'가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합산하였으며, 주제명가운데 이들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Taekwondo'(태권도)나 'Kimchi(김치)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이 뚜렷한 것은 가능한 포함시켰다. 물론 이들 용어는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검색하였다.

<표 1>은 각국의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 수와 한국관련 자료,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관련 자료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대학도서관의 자료 대비 한국관련 자료 수는 하버드대학도서관이 0.53%, 토론토대학도서관 0.40%, 국립 호주대학도서관 0.37%,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 0.34%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 규모는 하버드대학도서관이 100,927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토론토대학도서관이 47,441건으로 나타난 반면, 1,500건 미만의 도서관도 상파울루대학도서관과 텔리대학도서관의 2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베이징대학도서관의 경우 8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자료현황

대학도서관	구분	자료 수	한국관련 자료 수(%)	일본관련 자료 수(%)
미국 하버드대학도서관		1,890만	100,927 (0.53)	223,146 (1.18)
캐나다 토론토대학도서관		1,200만	47,441 (0.40)	127,545 (1.06)
멕시코 국립자치대학도서관		679만	2,223 (0.03)	9,560 (0.14)
브라질 상파울루대학도서관		800만	1,435 (0.02)	9,431 (0.12)
국립 칠레대학도서관		307만	708 (0.02)	2,628 (0.09)
국립 호주대학도서관		250만	9,215 (0.37)	34,259 (1.37)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		130만	4,431 (0.34)	16,157 (1.24)
중국 베이징대학도서관		1,100만	6,117 (0.06)	50,792 (0.46)
일본 도쿄대학도서관		935만	8,298 (0.09)	
인도 델리대학도서관		182만	2,411 (0.13)	4,953 (0.27)

*2015년 7월 5일 기준임

2.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목록 특성

각국의 대학도서관 OPAC 구조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하버드대학도서관의 OPAC을 예시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1>은 하버드대학도서관 OPAC의 초기 검색화면에서, 기본검색인 ‘Search’와 확장검색인 ‘Advanced Search’ 가운데 확장검색을 선택하여 나타난 입력 화면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러한 2가지로 구분하여 검색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마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Advanced Search’(확장검색)을 선택한 다음 커서를 이동하면 ‘Keywords anywhere’, ‘Title’, ‘Author/Creator’, ‘Subject’, ‘Form/Genre’, ‘Publisher’, ‘Language’ 등의 선택사항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그림 1〉 하버드대학도서관의 OPAC (초기 검색화면)

‘Subject’를 선택하여 ‘Korea’와 ‘Korean’, ‘Koreans’를 입력한 다음, 조합 키 ‘OR’를 선택하면 전체 레코드 수와 함께 리스트가 제시된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OPAC에서 이와 같이 확장검색을 통해 표제, 저자, 주제명, 키워드 등이 검색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분류기호나 통일표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다. 여기서 주제명은 일반 주제명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주제명과 함께 자관에서 통제된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레코드의 입력체계는 베이징대학도서관과 도쿄대학도서관의 경우 UNIMARC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Chinese MARC과 Japan MARC 형식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하버드 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MARC 21 형식의 계열을 적용하고 있다.

주제명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나 전거표목을 적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인 LCSH를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반입된 레코드의 경우 이미 기술되어 있는 주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Ⅲ.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 레코드 특성 분석

1. 한국관련 목록 레코드의 현황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은 <표 2>와 같이 철학종교, 사회과학, 과학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여기서 세부항목은 LCSH에서 추출한 한국관련 주제명을 유사한 주제끼리 군집화 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주제세목, 지리세목, 시대세목, 형식세목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정현 2011, 146). 이러한 세부항목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목록레코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제적인 주제명이다. 각 도서관의 주제명은 언어가 다른 경우 표기방식이 다르며, 같은 언어라

<표 2>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구분

주제영역	세부항목
철학종교	① 철학, 윤리, 유학, ②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③ 종교, 신학, 기독교, 불교
사회과학	① 사회일반, 언론, 인구, ② 경제, 무역, 산업, ③ 문화, 유적지, ④ 정치, 통일문제, 핵문제, 군사분계선, ⑤ 외교, 국제관계, ⑥ 법률, 인권, ⑦교육, ⑧ 국방, ⑨ 한국인, 민족, ⑩ 여성
과학기술	① 자연과학, ② 기술과학, ③ 의학, 병리학, ④ 농업, 수산업, ⑤ 음식, 요리, 김치
예술	① 예술일반, ② 음악, ③ 미술, ④ 건축, ⑤ 조각, ⑥ 영화, TV드라마, ⑦ 도자기, ⑧ 태권도, 스포츠, 축구, 2002월드컵
언어	① 언어
문학	① 문학일반, ② 시, ③ 소설, ④ 희곡, ⑤ 수필, ⑥ 산문, ⑦ 풍자
역사지리	① 역사, 전기, ② 한국전쟁, ③ 지리, 지도, 국경, 영토, 산, 강, ④ 여행, 안내

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서 주제명이 적용되고 있다.

각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는 확장검색에서 주제명 또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제명이나 키워드간에 불리언조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국관련 레코드의 구체적인 주제별 분포 현황은 <표 3>과 같다. 각 대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은 <표 2>에 제시한 세부항목이 결합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각 대학도서관

<표 3>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

대학도서관	주제영역	철학 종교	사회 과학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기타	합계	한국	남한	북한
하버드	주제명수 (%)	419 (4.7)	3,887 (43.8)	246 (2.8)	778 (8.8)	822 (9.3)	827 (9.3)	1,892 (21.3)		8,871 (100.0)			
	레코드수 (%)	5,494 (5.4)	44,884 (44.5)	2,997 (3.0)	5,465 (5.4)	4,427 (4.4)	14,709 (14.6)	22,215 (22.0)	736 (0.7)	100,927 (100.0)	55,093 (54.6)	38,627 (38.3)	7,207 (7.1)
토론토	주제명수 (%)	318 (3.7)	4,178 (48.9)	273 (3.2)	773 (9.1)	661 (7.7)	579 (6.8)	1,756 (20.6)		8,538 (100.0)			
	레코드수 (%)	3,575 (7.5)	19,785 (41.7)	1,476 (3.1)	3,704 (7.8)	3,720 (7.9)	6,436 (13.6)	8,610 (18.1)	135 (0.3)	47,441 (100.0)	26,727 (56.3)	16,780 (35.4)	3,934 (8.3)
멕시코	주제명수 (%)	18 (3.2)	249 (43.8)	37 (6.5)	75 (13.2)	44 (7.7)	40 (7.1)	108 (18.5)		568 (100.0)			
	레코드수 (%)	50 (2.3)	1,198 (53.9)	82 (3.7)	214 (9.6)	162 (7.3)	110 (4.9)	387 (17.4)	20 (0.9)	2,223 (100.0)	1,392 (62.6)	617 (27.8)	214 (9.6)
상파울루	주제명수 (%)	11 (3.3)	155 (46.0)	34 (10.1)	43 (12.8)	13 (3.8)	14 (4.1)	67 (19.9)		337 (100.0)			
	레코드수 (%)	40 (2.8)	698 (48.6)	246 (17.1)	101 (7.1)	30 (2.1)	43 (3.0)	269 (18.8)	8 (0.6)	1,435 (100.0)	939 (65.4)	419 (29.2)	77 (5.4)
칠레	주제명수 (%)	8 (2.7)	144 (62.8)	11 (3.1)	32 (14.2)	8 (3.5)	5 (2.2)	29 (11.5)		237 (100.0)			
	레코드수 (%)	12 (1.7)	416 (58.8)	15 (2.1)	50 (7.1)	15 (2.1)	53 (7.5)	139 (19.6)	8 (1.1)	708 (100.0)	470 (66.4)	166 (23.4)	72 (10.2)
호주	주제명수 (%)	188 (6.4)	1,698 (57.6)	120 (4.1)	198 (6.7)	177 (6.0)	104 (3.5)	461 (15.7)		2,946 (100.0)			
	레코드수 (%)	413 (4.5)	4,951 (53.7)	371 (4.0)	673 (7.3)	412 (4.5)	462 (5.0)	1,901 (20.6)	32 (0.4)	9,215 (100.0)	6,403 (69.5)	1,858 (20.2)	954 (10.3)
웰링턴 빅토리아	주제명수 (%)	77 (5.5)	786 (56.3)	84 (6.0)	145 (10.4)	86 (6.2)	62 (4.5)	155 (11.1)		1,395 (100.0)			
	레코드수 (%)	153 (3.5)	2,552 (57.6)	180 (4.1)	218 (4.9)	194 (4.4)	171 (3.9)	902 (20.4)	61 (1.4)	4,431 (100.0)	2,577 (58.2)	1,326 (29.9)	528 (11.9)
베이징	주제명수 (%)	43 (3.2)	749 (56.4)	50 (3.8)	69 (5.2)	65 (4.9)	63 (4.7)	288 (21.7)		1,327 (100.0)			
	레코드수 (%)	166 (2.7)	2,704 (44.2)	157 (2.6)	383 (6.3)	636 (10.4)	730 (11.9)	1,251 (20.5)	90 (1.5)	6,117 (100.0)	3,342 (54.6)	2,336 (38.2)	439 (7.2)
도쿄	주제명수 (%)	49 (2.5)	1,068 (55.0)	105 (5.4)	113 (5.8)	127 (6.5)	94 (4.5)	386 (19.9)		1,942 (100.0)			
	레코드수 (%)	441 (5.3)	3,833 (46.2)	584 (7.0)	635 (7.7)	490 (5.9)	433 (5.2)	1,794 (21.6)	88 (1.1)	8,298 (100.0)	5,763 (69.4)	1,985 (23.9)	553 (6.7)
멜리	주제명수 (%)	27 (5.1)	230 (43.8)	32 (6.1)	50 (9.5)	42 (8.0)	47 (9.0)	97 (18.5)		525 (100.0)			
	레코드수 (%)	97 (4.0)	1,217 (50.5)	87 (3.6)	202 (8.4)	138 (5.7)	184 (7.6)	457 (19.0)	29 (1.2)	2,411 (100.0)	2,153 (89.3)	180 (7.5)	78 (3.2)

*2015년 7월 5일 기준임

1) <표 3>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은 해당 대학도서관의 OPAC을 직접 조사한 내용임.

관의 언어 구조에 따라 동일한 주제명이라도 한국을 나타내는 지리제목이 주제명 첫 머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나 태권도와 같은 특정 주제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 주제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다. <표 3>에서 특정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 2>의 세부항목별로 주제명과 레코드 수를 모두 조사하여 구분하였지만 <표 3>에서는 주제영역까지만 나타내었다. 또한 각 대학도서관의 한국, 남한, 북한관련 레코드도 조사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각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가. 미국 하버드대학도서관

하버드대학도서관(Harvard University Library)은 1638년에 설립되어 미국의 Cambridge, Massachusetts에 위치하고 있으며, 73개 도서관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1,890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53%인 100,927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1.18%인 223,146건으로 2.2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38,627건(38.3%), 북한 7,2074건(7.1%)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44,884건(44.5%), 역사지리 분야가 22,215건(22.0%)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2,997건(3.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버드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3,510건(13.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9,812건)>사회(8,631)>문화(7,77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언어'가 822건(8.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799)>한국인(767)>사회(71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캐나다 토론토대학도서관

토론토대학도서관(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은 캐나다의 Toronto에 위치하고 있으며, 44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1,200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150만 건의 전자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40%인 47,44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관련 레코드는 1.06%인 127,54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6,780건(35.4%), 북한 3,934건(8.3%)이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9,785건(41.7%), 역사지리 분야가 8,610건(18.1%)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476건(3.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5,142건(10.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3,853건)>언어(3,720)>정치(3,345)>문화(2,824) ...’ 순이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도 ‘역사’가 1,245(14.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854건)>외교(663)>언어(661)>경제(597)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도서관

멕시코 국립자치대학도서관(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은 수도인 Mexico C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79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3%인 2,223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0.14%인 9,56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617건(27.8%), 북한 214건(9.6%)이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198건(53.9%), 역사지리 분야가 387건(1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50건(2.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가 419건(18.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298건)>정치(249건)>언어(162건)> ...’ 순이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는 ‘역사’가 68건(12.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58건)>경제(52건)>언어(44건)> ...’ 순이다.

라. 브라질 상파울루대학도서관

상파울루대학도서관(Biblioteca University of São Paulo)은 브라질 최대의 도시인 São Paulo에 위치하고 있으며, 70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800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25만 건의 e-book과 2만종의 전자저널에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2%인 1,435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0.12%인 9,43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1,435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419건(29.2%), 북한 77건(5.4%)건이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698건(48.6%), 역사지리 분야가 269건(18.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레코드가 30건(2.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가 220건(15.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65건)>역사(162건)>자연과학(97건)>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는 ‘경제’가 72건(21.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37건)>예술일반(25건)>한국전쟁(21건)> ...’ 순이다.

마. 칠레 국립대학도서관

국립칠레대학도서관(Universidad de Chile-Bibliothèques)은 칠레의 수도인 Santiago에 위치하고 있으며, 48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07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6만종의 전자저널과 170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2%인 708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0.09%인 2,62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66건, 북한관련 레코드 72건이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416건(58.8%), 역사지리 분야가 139건(19.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12건(1.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외교’가 138건(19.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15건)>경제(99건)>정치(68건)>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는 ‘경제’가 47건(19.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27건)>문화(19건)>역사(18건)> ...’ 순이다.

바. 호주 국립대학도서관

호주 국립대학도서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은 수도인 Canberra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0만 건의 자료 소장과 함께 저널의 원문을 포함하여 630만 건의 전자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소장자료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37%인 9,21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1.37%인 34,25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858건(20.2%), 북한관련 레코드는 954건(10.3%)이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4,951건(53.7%), 역사지리 분야가 1,901건(20.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371건(4.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202건(13.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103건)>사회(863)>경제(803)>문화(693) ...’ 순이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사회’가 353건(12.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334)>정치(252)>외교(197)>역사(18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도서관(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ibrary)은 뉴질랜드의 수도인 Wellington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130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7만종의 저널과 20만 건의 e-Book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34%인 4,43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관련 레코드는 1.24%인 16,15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326건(29.9%), 북한관련 레코드는 528건(11.9%)이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552건(57.6%), 역사지리 분야가 902건(20.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153건(3.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가 674건(15.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558건)>정치(478)>외교(452)>사회(333) ...’ 순이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226건(16.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111건)>사회(102)>정치(92)>언어(86)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중국 베이징대학도서관

베이징대학도서관(北京大学图书馆)은 중국의 수도인 北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100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6%인 6,117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0.46%인 50,79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336건(38.2%), 북한관련 레코드는 439건(7.2%)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704건(44.2%), 역사지리 분야가 1,251건(20.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57건(2.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에서 ‘역사’가 675건(11.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636건)>정치(505)>외교(456)>문화(40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는 ‘경제, 무역’이 165건(12.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61건)>문화(153)>사회일반(114)>외교(107)> ...’ 순이다.

자. 일본 도쿄대학도서관

도쿄대학부속도서관(東京大学附属図書館)은 일본의 수도인 東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935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9%인 8,29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985건(23.9%), 북한관련 레코드는 553건(6.7%)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3,833건(46.2%), 역사지리 분야가 1,794건(2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문학 분야의 레코드가 433건(5.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에서 ‘역사’가 983건(11.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718건)>문화(670)>정치(590)한국인(531)>언어(49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는 ‘경제’가 287건(1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220건)>외교(186)>정치(146)사회일반(133)>언어(127) ...’ 순이다.

차. 인도 델리대학도서관

델리대학도서관(Delhi University Library)은 인도의 Delhi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모두 37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자형 자료 182만 여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63개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13%인 2,4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관련 레코드는 0.27%인 4,95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80건(7.5%), 북한관련 레코드는 78건(3.2%)으로 주제명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217건(50.5%), 역사지리 분야가 457건(19.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87건(3.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340건(14.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313건)>경제(255)>정치(192)>사회(175) ...’ 순이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는 ‘역사’가 70건(13.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58)>언어(44)>외교(39)>사회(3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관련 목록 레코드의 특성

한국어 자료의 번자표기, 한국어 원어 기술 및 한글 검색 유무, 그리고 한국의 국가명, 태권도나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과 같은 대표적인 한국관련 주제명의 표기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 미국 하버드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매쿰-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romanization)에 따라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다. 한국어 원어를 함께 기술하고 있으며, 한글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2>의 예시는 최순권의 “고종과 순종의 국장 사진첩”(Kojong kwa Sunjong ūi kukchang sajinch'öp)이며, 번자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Tae kwon do’로 44개, ‘Karate’로 88건이 검색되었다. 그런데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레코드는 표제에 ‘태권도’라고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에 Karate라고 표기한 것이 있다. ‘김치’관련 주제명은 ‘Kimuchi’가 아니라 ‘Kimchi’로 표기되어 있으며 31건이 검색된다. ‘독도’관련 주제명은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Korea’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한국식 발음인 ‘Tok Island(Korea)’로 표기되어 있으며, 258건이 검색된다. ‘동해’ 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라는 표목 아래 127건이 검색되며,

표제에 ‘East Sea’나 ‘Tonghae’, ‘동해’가 있어도 주제명은 ‘Japan, Sea of’이다. 그리고 ‘East Sea’로 검색되는 대부분의 레코드는 ‘동해’와 관련이 없는 각국의 동쪽바다를 의미하고 있다. 황해는 ‘Yellow Sea’로 표기되어 있으며 71건이 검색된다. ‘압록강’관련 주제명은 중국식 발음인 ‘Yalu River’로 표기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지리 한정어로 첨가하고 있으며, 9건이 검색된다. ‘두만강’ 관련 주제명은 중국식 발음인 ‘Tumen River’와 ‘Tumen River Region’로 표기하면서 지리 한정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4건이 검색된다. ‘백두산’관련 주제명은 한국식 발음인 ‘Paektu Mountain(Korea)’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64건이 검색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경 및 영토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명인 ‘독도’와 ‘백두산’ 등은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어 발음으로 되어 있다. ‘동해’는 일본의 입장에서 표기되어 있다.

	고종과순종의국장사진첩
Title:	Kojong kwa Sunjong ū kukchang sajinch'ŏp
Attribution:	해제최순권. haeje Ch'oe Sun-gwŏn.
Variant title:	Kukchang sajinch'ŏp 국장사진첩
Description:	1 v. (unpaged) : chiefly ill. ; 31 cm.
Language:	Korean
Notes:	Some captions in Japanese.
Subject:	고종, -- King of Korea, -- 1852-1919 -- Death and burial -- Pictorial works.; 순종, -- King of Korea, -- 1874-1926 -- Death and burial -- Pictorial works.; Kojong, -- King of Korea, -- 1852-1919 -- Death and burial -- Pictorial works.; Sunjong, -- King of Korea, -- 1874-1926 -- Death and burial -- Pictorial works.;

<그림 2> 하버드대학교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나.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원어와 함께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글로 검색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 관련 주제명은 ‘Tae kwon do’(태권도)와 ‘Karate’(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37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48건이다 또한 표제가 ‘태권도’이지만 주제명이 ‘Karate’만으로 표기된 것도 1건이 있다. 여기서 ‘Tae kwon do’(태권도)의 상위주제어는 ‘Karate’(가라테), 가라테의 상위주제어는 ‘Judo(유도)’로 정의되어 있다. ‘독도’관련 주제명 ‘Tok Island (Korea)’로 236건이 검색되며, 지리주제명 ‘Takeshima’로도 3건이 검색된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 255건이 검색되며, 표제에 ‘동해’나 ‘East Sea’가 나타나 있어도 주제명은 ‘Japan, Sea of’만 기재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19건 검색되며, 표제에 ‘킴치’나 ‘kimuchi’(기무치)라고 되어 있어도 주제명은 ‘Kimchi’(김치)로 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황해는 ‘Yellow Sea’ 36건, 백두산

‘Paektu Mountain (Korea)’ 52건, 압록강 ‘Yalu River (China and Korea)’ 3건, 두만강 ‘Tumen River’ 7건이 검색된다.

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주제명(Descriptores)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태권도에 관한 레코드가 65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102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림 3>에서와 같이 표제에 ‘Taekwondo’나 ‘Tae Kwon Do’라는 키워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레코드 가운데 10건이 ‘Karate’라는 주제명(Descriptores)만 부여되어 있다. 동해는 ‘Mar del Japón’ 주제명 6건, 황해는 ‘Mar Amarillo’ 주제명 3건, 김치는 ‘Kimchi’ 주제명 1건이 검색되며, 독도,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Taekwondo / por David Mitchell ; tr. Cristina Halberstard	
Idioma:	Español
Autores:	Mitchell, David, 1944-, autor
Información de la publicación:	Barcelona : Paidotribo, [1990?]
Fecha de publicación:	1990
Descripción física:	264 páginas : ilustraciones
Serie:	Coleccion artes marciales
Tipo de publicación:	Libro
Tipo de documento:	No ficción
Descriptores:	Karate
ISBN:	84-8019-240-2

<그림 3> 멕시코 국립자치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라. 브라질 상파울루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ia’, 남한은 ‘Coreia do Sul’, 북한은 ‘Coreia do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제에 ‘Taekwondo’라는 키워드가 있는 25건의 레코드가 주제명(Assunto)은 모두 ‘ARTES MARCIAIS’와 같은 일반 주제명으로 부여되어 있고 ‘Tae Kwon Do’라는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에 가라테는 ‘KARATÉ’라는 주제명으로 58건이 검색된다. 동해는 ‘Japan, Sea of’ 주제명 5건, 황해는 ‘Yellow Sea’ 주제명 3건이 검색되며, 김치, 독도,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마. 국립 칠레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Dokdo'로 1건 검색되며, 지리한정어가 포함된 직접적인 '독도' 주제명은 기술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일반 상위주제로 나타나있다. 동해, 황해, 태권도, 김치,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바. 호주 국립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한국어 원어와 함께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글 검색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Taekwondo'로 1건이 있지만 주제명은 'Karate'로 부여되어 있다. 'Karate' 관련 레코드는 2건 나타나고 있다. '독도'관련 주제명 'Tok Island (Korea)'로 36건이 검색된다. 'Takeshima'로는 표제 키워드로 6건이 검색되지만 대부분 주제명은 'Tok Island (Korea)' 또는 'Korea -- Foreign relations -- Japan', 'Japan -- Foreign relations -- Korea', 'Territory, National -- Korea (South)', 'Territory, National -- Japan'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Takeshima'라는 주제명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 7건이 검색되며, 표제에 '동해'나 'East Sea'가 나타나 있어도 주제명은 'Japan, Sea of'만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황해 'Yellow Sea' 7건, 김치 'Kimchi' 3건, 백두산 'Paektu Mountain (Korea)' 3건, 압록강 'Yalu River (China and Korea)' 4건, 두만강 'Tumen River' 5건이 검색된다.

사.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한국어 원어와 함께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글 검색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Tae kwon do'(태권도)와 'Karate'(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3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16건에 이르고 있다. '독도'관련 주제명은 'Tok Island (Korea)'로 7건이 검색되며, 주제명 'Takeshima'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로 3건이 검색되며, 황해관련 주제명은 'Yellow Sea'로 4건이 검색된다. 이외에도 김치 'Kimchi' 3건, 백두산 'Paektu Mountain

(Korea)’ 1건이 검색되며, 압록강과 두만강은 1건도 검색되지 않는다.

아. 중국 베이징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가 일부 소장되어 있으며, 한글 검색도 가능하다. 이들 자료는 한국어 원어로 표기되어 있고 중국어나 로마자로 번자 표기는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가 명칭은 남한과 북한을 통칭하여 ‘朝鮮’(Korea)으로, 남한은 ‘韩国’, 북한은 ‘朝鮮民主主义人民共和国’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표제가 朝鮮民主主义人民共和国, 北韓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대부분 ‘朝鮮’으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大韓民國과 南韓은 ‘韩国’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朝鮮’으로 나타내고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주제명 ‘獨島’(독도)로 2건, ‘竹島’(다케시마)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표목의 관점에서는 ‘독도(獨島)’와 ‘다케시마(竹島)’를 발행된 자료의 출처에 따라 각각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서적은 LCSH를 채용하여 ‘Tok Island (Korea)’와 같이 부여하고 있으며, 8건이 검색된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日本海’로 8건, ‘Japan, Sea of’로 7건이 검색되며, ‘東海’로 79건이 검색되지만 우리나라의 동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황해’관련 주제명은 ‘黄海 huang hai’ 44건, ‘Yellow Sea’ 4건이 검색된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5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중국의 입장에서 주제명을 ‘泡菜’로 부여하고 있는 레코드가 일부 있으며, 주제명으로 ‘김치’와 ‘キムチ’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권도는 ‘跆拳道’라는 주제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8건의 레코드가 검색되고 있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각각 ‘图们江’과 ‘鴨綠江’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표제 키워드 ‘白头山’으로 검색되는 레코드는 7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제명이 ‘白头山 Bai tou Shan’과 ‘长白山 Chang bai Sha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각각 1건씩 있으며, 나머지 5건은 일반 주제명이 기술되어 있다. 표제 키워드 ‘长白山’은 88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대부분 ‘长白山 Chang bai Shan’으로 기술되어 있다.

白头山天池 丁兴旺编著 丁兴旺 编著	
ISBN:	¥0.59
Title:	白头山天池 丁兴旺编著
Publication info:	北京 地质出版社 1982
Physical descrip:	115页 图 20厘米
Series:	中国名胜地质丛书 殷维翰, 边知非主编 Yin Wei Han , Bian Zhi Fei Zhu Bian
图书馆:	北大中心馆 地球空间
Geographic subject:	长白山 Chang bai Shan 导游 手册
中图法分类号:	K928.7034
Alt. author:	丁兴旺 编著

<그림 4> 베이징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자. 일본 도쿄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그림 5>에서와 같이 한국어 원어와 함께 표제를 한글로 번자 표기하여 한글 검색이 가능하며, 대부분 일본어로도 번역하여 별서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일본어 자료는 가타가나로 번자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명칭은 조선시대 국명인 ‘朝鮮’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분단시기인 1948년 이후의 남한은 ‘大韓民國’, 북한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圖書> 한일 근대 문학의 비교 연구 韓日近代文學의 比較研究 / 慎根絳著	
出版者	서울 : 一潮閣
出版年	1995.2
大きさ	viii, 335p ; 24cm
別書名	異なリアクセスタイトル 韓日近代文學の比較研究 翻訳タイトル 韓日近代文學の比較研究
著者標目	慎, 根絳 <신, 근재>
分類	KDC3:810.906 DC19:895.709
本文言語	朝鮮語
コード類	書誌ID=2001775884 NCID=BA64886491 CiNii ISBN=8933701583

<그림 5> 도쿄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독도’관련 레코드는 ‘竹島’와 ‘竹島問題’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35건이 검색된다. 표제키워드 ‘독도’로 62건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인 상위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모두 ‘日本海’로 주제명을 나타내고 있다. ‘황해’관련 레코드는 ‘黃海’로 2건, ‘Yellow Sea’로 7건이 검색된다.

‘김치’관련으로 7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지만 국제적 정식명칭인 ‘Kimchi’ 대신에 ‘キムチ(기무치)’를 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권도(テコンド)’는 1건의 레코드가 검색된다.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25건이 검색되지만 ‘白頭山’이라는 주제명으로는 4건이 검색되며, 지리 한 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표제에 ‘장백산’이나 ‘長白山’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제명으로 ‘장백산’이나 ‘長白山’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압록강’과 ‘두만강’관련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표제 키워드 ‘鴨綠江’ 44건, ‘豆滿江’ 9건의 레코드가 검색된다.

한편 서양서는 대부분 LCSH를 적용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즉, ‘독도’관련 주제명 ‘Tok Island (Korea)’로 8건, ‘동해’관련 주제명 ‘Japan, Sea of’로 13건, ‘황해’관련 주제명 ‘Yellow Sea’ 7건이 검색된다.

차. 인도 델리대학도서관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Dokdo'로 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descriptor)은 지리 한정어 없이 일반적인 색인어로 부여되어 있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Taekwondo'로 6건이 검색되지만 있지만 주제명은 모두 일반 키워드로 기술되어 있으며, 'Karate' 관련 레코드는 2건 검색된다. '김치' 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Kimchi'로 5건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Cooking' 등으로 나타나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East See' 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황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10개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를 분석한 바와 같이 베이징 대학과 도쿄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 한국어 자료는 모두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다. 도쿄대학도서관은 한국어 원어와 함께 한글로 번자 표기하고 있다.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한 도서관은 하버드, 토론토, 호주, 웰링턴 빅토리아, 도쿄대학도서관이며, 이들 도서관은 모두 한글로 검색이 가능하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한 5개관이 주제명을 'Taekwondo'나 'Tae kwon do'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상파울루와 델리대학도서관은 표제에 'Taekwondo'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태권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표제 키워드에 'Taekwondo'라고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에는 'Karate'만 표기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한 5개관이 주제명을 'Kimchi'(김치)로 표기하고 있으며, 도쿄대학도서관은 '킴치'(기무치), 베이징대학도서관은 표제에 '김치'나 '킴치'가 있어도 주제명은 '泡菜'로 기술하고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하버드, 토론토, 호주,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에서는 'Tok Island (Korea)'와 같이 한국입장에서 표기하고 있으며, 도쿄대학도서관은 '竹島'와 같이 일본입장에서, 베이징대학도서관은 '獨島'나 '竹島'와 같이 자료의 출처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칠레와 델리대학도서관은 표제에 'Dokdo'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독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표제 키워드로 'East Sea'나 'Tonghae', '東海'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제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Japan, Sea of', 'Mar del Japón', '日本海'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하버드, 토론토, 호주, 베이징대학도서관 등에서 주제명은 중국식 발

음인 ‘Yalu River (China and Korea)’, ‘鴨綠江’으로 표기하고 있다. 도쿄대학도서관의 경우 표제에 ‘Yalu River’나 ‘鴨綠江’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주제명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두만강’관련 레코드는 하버드, 토론토, 호주, 베이징대학도서관 등에서 주제명을 중국식 발음인 ‘Tumen River’와 ‘圖們江’로 표기하고 있다. 도쿄대학도서관의 경우 표제에 ‘豆滿江’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주제명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백두산’관련 레코드는 하버드, 토론토, 호주, 웰링턴 빅토리아대학도서관 등에서 주제명을 ‘Paektu Mountain (Korea)’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베이징대학도서관은 ‘長白山 Chang bai Shan’으로 표기하고 있다. 도쿄대학도서관은 ‘白頭山’은 주제명으로 표기하지만 ‘長白山’은 주제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Korea’나 ‘Korean’이라는 단어와 관계없이 한국관련 주제명으로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한 5개관에서는 Pa'nso(판소리), Arirang(아리랑), Üibyöng(의병), Kayagüm(가야금), Kömun'go(거문고) 등이 검색된다.

IV. 결 론

아태지역 주요 10개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체로 한국관련 레코드가 해당 대학도서관의 자료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관이 5,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국립 칠레대학도서관은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파울루와 베이징대학도서관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거나 LCSH를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UNIMARC 형식 보다는 MARC 21 형식의 계열로 레코드를 구조화하고 있다.

셋째, 베이징과 도쿄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한글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5개관이었다.

넷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황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인 베이징

과 도쿄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면 상파울루, 칠레, 멕시코, 텔리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레코드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제명의 표기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대학도서관의 자료 수집정책이나 목록조직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관련 자료가 널리 소장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자료교환이나 기증 확대, 한국관련 자료의 외국어 출판 장려, 국내 출판물의 배포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김영귀. 1997.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44: 237-272.
- 김정현. 2010.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47-169.
- 김정현. 2011.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3): 141-162.
- 김정현. 2013.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17-239.
- 김정현. 2014. 유럽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191-212.
-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남태우 외. 2008.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91-310.
- 문지현. 2012. 『中国分类主题词表』와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47-267.
- 문지현, 김정현. 2011a.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47-267.
- 문지현, 김정현. 2011b. 「中国分类主题词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2(3): 331-350.
-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5.
- 윤정옥. 2012.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3-141.
- 윤정옥. 2013.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5-23.
- 정연경. 2010.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51-72.
- Chan, Lois Mai. 2005.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Kim, Joy. 1989.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0. *Subject Headings on Korea*.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Library of Congress. 2013.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6 vols. 35th e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 OECD. 2011.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 Making*. OECD <<http://www.oecd.org/internet/ieconomy/49258588.pdf>> [cited 2015. 7. 5].
- 東京大学附属図書館. <<http://www.lib.u-tokyo.ac.jp/>> [cited 2015. 7. 5].
- 北京大学图书馆. <<http://www.lib.pku.edu.cn/portal/index.jsp>> [cited 2015. 7. 5].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ttp://anulib.anu.edu.au/index.html>> [cited 2015. 7. 5].
- Biblioteca Central de la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http://dgb.unam.mx/>> [cited 2015. 7. 5].
- Biblioteca University of São Paulo. <<http://www.usp.br/sibi/>> [cited 2015. 7. 5].
- Delhi University Library. <<http://crl.du.ac.in/>> [cited 2015. 7. 5].
- Harvard University Library. <<http://lib.harvard.edu/>> [cited 2015. 7. 5].
- Universidad de Chile-Bibliothèques. <<http://catalogo.uchile.cl/>> [cited 2015. 7. 5].
-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http://onereach.library.utoronto.ca/>> [cited 2015. 7. 5].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ibrary. <<http://library.victoria.ac.nz/library/>> [cited 2015. 7. 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Yeon Kyoung. 2010. "A Study o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as an Information Access Po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51-72.
- Kim, Jeong-Hyen. 2010.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47-169.
- Kim, Jeong-Hyen.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PAC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41-162.
- Kim, Jeong-Hyen.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n Border in the Subject Headings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217-239.
- Kim, Jeong-Hyen.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 Related to Korea in the Major Europ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191-212.
- Kim, Jeong-Hyen, Ji-Hyun Moo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49-68.
- Kim, Young-Kuy. 1997. "The Study of Selection and Scription of Korean-Related Subject Heading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usan women's university Journal*, 44: 237-272.
- Moon, Ji-Hyun.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CCT and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121-141.
- Moon, Ji-Hyun, Jeong-Hyen Kim. 2011a.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47-267.
- Moon, Ji-Hyun, Jeong-Hyen Kim. 2011.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Journal of*

Korea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331-350

- Nam, Tae Woo etc. 2008. "A Study of the Dokdo Notation Problem in Terms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291-310.
- Yoon, Cheong-Ok. 2001. "The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LCSH." *Doseogan*, 56(1): 30-55.
- Yoon, Cheong-Ok. 2012.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the WorldCa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3-141.
- Yoon, Cheong-Ok. 2013. "An Analysis on the Juvenile Books on Korea and Japan in the WorldCa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5-23.

